

공공도서관의 독서진흥

운동

- 광진정보도서관을 중심으로 -



오지은*

한국의 공공도서관은 1960~70년대는 공부방을 제공하는 기능이 주요기능으로 여겨졌지만 1980년대부터 문화프로그램을 도입하여 학습장소의 이미지를 탈피하고자 노력하였으나 그 뿌리박힌 이미지를 벗겨내기에는 역부족이었다.

도서관정책을 좌지우지하는 관료들도 단순히 공부방으로만 도서관을 이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도서관의 중요성과 기능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 접어들면서 지식정보를 제공하는 지역정보센터로서 공공도서관이 부각되고 지식정보를 새롭게 창출할 수 있는 능력의 기본이 바로 독서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은 공공도서관의 중요성과 역할을 새롭게 인식시키고 있다.

현재의 도서관및독서진흥법은 도서관법으로 개정이 추진중이며 공공도서관 정의도 과거의 정보제공, 문화발전, 평생교육이라는 커다란 세 가지 의미에 독서진흥이 추가될 예정이다.

이제 지역주민들의 독서진흥을 위해 공공도서관의 역할이 더욱 더 중요해지고 절실히 필요할 때이다. “더 이상 공공도서관은 식물인간이 아니다. 지역주민과 같이 성장하는 생명체가 있는 유기체이다”라고 주장하면서 내가 근무하고 있는 광진정보도서관의 지역주민들을 위한 독서활동지원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개관초기 광진정보도서관은 자료열람실보다 좌석수가 훨씬 더 많은 일반열람실은 이용자로 꽉 차 밖에 대기자가 줄을 몇 미터씩이나 서고 있는데 바로 옆 건물의 자료열람실은 자리가 텅텅 비어 있었다. 일반열람실 대기자로부터 많은 원성을 들었다. 그러나 도서관의 진정한 역할은 공부방이 아니었기에 사서들은 자료열람실에 오로지 공부만을 목적으로 들어오는 이용자를 보냈다. 그리고 사서들은 매월 추천도서를 선정하여 책등에 “○월

* 광진정보도서관 사서과장, oyes@gwangjinlib.seoul.kr

추천도서”라는 라벨을 붙여 신착도서와 추천도서코너를 마련하여 게시물과 함께 열람실 입구에 비치하고 이 달의 읽을만한 책(일반용, 청소년용), 눈에 띄는 새책, 청소년 방학중 권장도서 등의 홍보물을 직접 만들어 안내데스크에 비치하고 이용자에게 직접 권유하였다. 또 국내 4대 일간지의 도서 및 독서관련 기사를 오려 큰 파일에 날짜별로 모아 열람책상 중간에 비치하고 열람실의 모든 벽면에 게시판을 설치하여 도서와 독서에 관한 정보를 매주 새롭게 개첨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개관한 지 4년이 지난 오늘날 자료열람실은 책을 읽는 사람들로 열람석이 꽉 차있다. 오히려 열람석을 늘려야 할 정도이다. 만일 그 시기에 소수의 이용자들의 반발을 무마하려고 자료열람실에서의 개인학습을 허용했다면 오늘날 자료열람실은 공부하는 사람들로 인하여 독서를 위해 도서관을 방문한 이용자들은 발걸음을 돌렸을 것이다.

현재 광진정보도서관은 대출도서 중 아동서가 56%를 차지할 만큼 어린이 독서인구가 날로 늘고 있다. 어린이에게 도서만을 제공하지 않고 좀 더 적극적으로 독서동기와 흥미를 유발하기 위해 평일 오전에는 좋은동화읽어주기 프로그램을, 주말에는 동화구연마당을 운영하고, 2개의 성인독서회와 별도로 10개의 어린이독서회를 매월 2회 운영하여 대기자가 있을 정도로 지역주민의 반응이 뜨겁다.

12개의 독서회는 별도의 사이버공간을 만들어 회원간의 정보공유와 온라인 독서토론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어린이독서회의 경우 별도의 독서회 전용게시판을 만들어 독서회에서 나온 독후활동물을 전시하여 독서회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일으키도록 하고 있다.

작년부터 운영중인 어린이 책만들기교실은 아이들에게 직접 책을 만들어 보게 함으로써 책에 대한 소중함과 책이 주는 의미를 되새기는 계기로 삼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할아버지와 할머니들의 책만들기교실을 계획하고 있다.

독서의 흥미는 할머니, 할아버지의 무릎에서 생겨난다는 말이 있다. 할아버지와 할머니들이 자신들의 과거의 삶이나 지금의 손자, 손녀들에게 전해주고 싶은 이야기를 책으로 직접 만들어서 그들에게 보여주고 들려준다면 이보다 더 감동적인 독서체험이 있을까!

9월 독서의 달을 맞이하여서는 사랑의 책선물행사를 할 예정이다. 광진구내의 16개 동사무소의 추천을 받아 소년소녀가장과 저소득층가정의 청소년과 어린이에게 도서관에서 직접 책을 선물하고자 한다.

돈 없는 시민도 책은 읽을 수 있는 사회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나 도서관이 많지 않기 때문에 도서관에 가려면 돈과 시간이 드는 것이 현실이다. 그래서 그런 가정의 청소년과 어린이들은 책과 멀어져 있다. 그런 가정을 찾아 매년 책을 선물하려고 한다. 떠들썩한 어떠한 독서행사보다도 더 의미 있을 것 같다.

올해 독서의 달은 과거 매년 진행했던 권장도서목록발표, 도서대출권수확대, 독서 및 도서관이용 가두캠페인, 동화구연 특별공연과 강연회(이야기 들려주는 좋은 엄마), 작가와의 만남과 함께 책읽기 릴레이를 추진 할 계획이다. 선발주자 50명을 모집해 2달간 운영할 계획이다. 과연 50명을 통해 나간 50권이 2달간 몇 명을 거쳐 도서관에 돌아올 지 벌써 사서들 사이에 의견이 분분하다. 독서관련프로그램은 각 도서관마다 많이 있을 수도 적게 있을 수도 있다. 프로그램보다 중요한 것은 도서관이 지역주민의 독서활동지원에 임하는

자세 즉 사서의 열정이라고 생각한다.

한 예로 10월에 계획중인 체험전시회 '시리동동 거미동동'의 경우 어느날 권윤덕 동화 작가가 '시리동동 거미동동'이라는 주제로 청주기적의도서관 개관당시 때 전시되었던 체험전시회를 광진정보도서관에 할 수 있을지를 논의하기 위해 도서관을 방문하였다. 욕심이 났다. 이런 전시회는 아이들에게 더 없는 체험이 될 것 같았다.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보고 또 자신이 무언가를 해 보는 그런 전시회는 아이들에게 독서흥미를 유발하기에 더 없이 좋을 것이다. 문제는 예산이었다. 시간을 달라고 부탁드린 다음 현재 예산에는 없지만 지원 받을 수 있는지 여기저기 알아보았지만 허사였다. 이런 우리의 노력을 좋게 보신 권윤덕 작가께서 도서관에 체험전시회를 열 수 있도록 도움을 주셨다. 열정이 있다면 행사를 통해서가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독서진흥을 할 수 있다. 예산 없이도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은가!

요즘 도서관건립은 여기저기서 많이 추진되는 것 같다. 좋은 현상이긴 하나 화려한 개관식 후 초라해지는 도서관의 현실을 보면 씁쓸한 생각이 든다. 우리나라 도서관정책은 나무만 심고 그 나무가 자랄 수 있도록 햇빛과 양분을 주지 않는 것과 똑같다. 그래서 그 나무는 항상 비실비실하게 생명만 간신히 이어간다. 공공도서관이 활기차게 지역주민과 함께 호흡하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사서들이 열정을 가지고 일을 해야한다. 허나 적은 공공도서관수로 인하여 수용인원을 초과해 버리는 열람실과 사서의 사명감과 의무라는 굴레에 그들의 권리를 묻어두고 대다수의 사람들이 쉬는 공휴일에도 근무해야 하는 현실 속에서 오늘 열정이 얼마나 오래갈 수 있을지 의문이다.

우리사회가 공공도서관과 사서에게 관심을 가져 사서들이 열정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도록 한다면 그 이상 더 훌륭한 독서진흥프로그램은 없다고 나는 생각한다. 